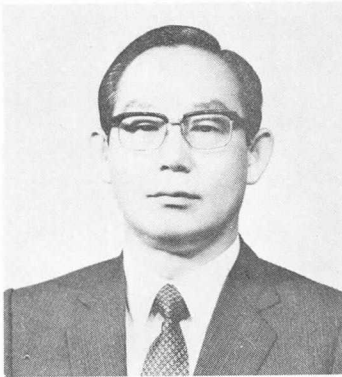


# 윤근환 신임 농림수산부장관 프로필

- 농수산 행정요직 두루 거친 농업전문가 -



윤근환 농림수산부장관

정부는 지난 2월 19일자로 제6 공화국을 이끌어 갈 조각에서 전 농협중앙회장인 윤근환씨를 신임 농림수산부 장관으로 임명했다.

신임 윤 장관은 30여년의 농수산 행정에 몸담아온 농학박사로, '54년 서울대 농대를 졸업, 농사원에 첫 발을 들여 놓은 후 농업경영연구소장, 농산차관보, 식산차관보, 농업기술연구소장, 농촌진흥청장, 농협중앙회장 등 농수산행정 요직을 두루 거친 농업전문가로 농정의 베테랑이다. 또, 윤 장관은 「일벌레」라는 다큐네임이 붙을 정도로, 오전 7시에 출근, 오후 9시에 퇴근하는 등

일하는 것이 취미이며 특기라고 말할 정도.

신임 윤근환 농림수산은 둘다리도 두들겨 건너는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로, 부하 직원을 자상하게 보살피 따르는 사람이 많다.

특히 농산차관보 시절, 통일벼 재배확대에 힘을 써 주곡자립에 남다른 정열을 쏟았는가 하면, 농협중앙회장 시절에는 전국 1천4백63개 단협을 직접 방문하는 등 농촌 구석구석에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매사에 부지런 하고 빈틈이 없이 5년 7개월간 회장직을 맡아 최장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.

윤 장관은 또한 현장 확인을 통해 농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1백 20여건의 대정부 건의문을 낼 정도로 농민의 권익 향상에도 힘써 왔으며, 유통구조 개선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.

또한 윤 장관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누가 무어라고 해도 밀고 나가는 소신파로도 알려졌으며, 작년 가을 추곡 수매 가격 결정과정에서 18.6% 인상을 공개적으로 제시, 당국을 당황케 하는 등 화제를 모으기도.

신임 윤 장관은 농업관료 출신이지만, 학계는 물론, 관계·금융계 등 각계에 지인이 많고 발이 넓은 편. 늘변이라는 본인의 자평으로 TV나 신문회견을 가능한한 기피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설득력이 남다른 주위의 평을 받기도 한다.

전남 함평이 고향인 신임 윤 장관은 김정언 여사와의 사이에 3남 1녀를 둔 화목한 가정으로 여가시간에는 위인전을 즐겨 읽는다고.